

「네—윤관판에서 백부장이 되셔요 저는 최춘식이올시다 귀함을듯기원합니다
하고 얼골에 반가운 빛친난다 그청년이속으로생각하되
「알수업다 그누구일고 아모리팔모로보아도 녀자가분명한대 행동이매우수
상한걸」하며 즉시대답한다

「네—나는윤자승이라하오」

「네—귀함은 자세하아릿습니다 또말삼하기는미안하오나 윤관판댁이어대신
지 일너주시기를바랍니다」

「네 묘동사시지요」하던차에 건장한청년한아이 완보로거러오더니 자승의수
작을듯고 웃듯서서한참듯다가

「여보게자승이 그소년이누구인대 우리집과 처분이된다고하나」자승이가도
라보더니 공손히

「네—형님 구경오셋습닛가 그런데알수가업습니다 저소년이 형님댁과 처분
이되어 춘천서왔다하는데 아모리생각하야도 춘천에는 먼죽척간이라고는업
는데 아마 다른집인가보외다」

빙심이 일구월심에 맏친것은춘천장터윤이라 엇지물나보리오 천만뜻밖에과
연춘천윤이라 속으로반갑기 한량업스나 무엇이라하리오 아모말도못하고 맥

스히안저있다 그건장한청년이 또빙심의압흐로오더니 인사를청한다

(여보처음뵙소 누구시오)

빙심이가다른사람과인사할때에는 태연이안저서 대답을하더니 이청년이 인사
를청함에대하야는 황망히이러나 공손이대답한다

「네—저는최춘식이라합니다」

「네—최춘식이시오요 나는윤덕승이라하오 그런데 엇던윤관판을 차저서올
오셋소」

「여기는번다해서 말삼을다고할수업습니다마는 전자에 춘천윤이라고하신일
이있지안습니까」청년이 한참서서 무삼생각을하며 빙심을유심히보더니

「네—그런일이있지요 그일은엇지아시오」

「여기는 말삼을고할수업사오니 생의집으로 잠간가섯스면 전후말삼을다고
하리다」

「댁이어대시오」

「동대문밖을시다」

덕승이도 역시 동반하였던 청년을도라보며

「일이하도이상하니 불가불좀가서보와야하겠네 있다가집으로맞나세」

하며 청년을 작별하고 빙심을 따라오며 속으로생각한다

「춘천윤이라할때에는 대관령에서 불안당을 좃고 내행들을 구할때에 내가한 말인데 엇지알가 이소년을 팔모로 쓰더보아도 녀자로남복함이 분명하니 후그 녀자가남복을하고 나를차저왔나」하며 어언간 빙심의 집을 당도하였다 빙심 이안으로 총々히드러가며

「어머니 하날이 우리정성을 감동하심인지 오날이야 대은인 춘천윤을 모시고왔사오니 나가서청하시오」빙심모 춘천윤이왔다는말을듯고

「응! 춘천윤이오셋서 인제는죽어도한이없다」하면서 급히밧그로 뛰어나오며청하여드린다

「어서드러오시오 대관령서대은을입고 총々히작별한지 우금삼사년이라오 날뵈을줄엇지뜻하얏스릿가」덕승이 빙심모에말을듯고 그제야황연대각하고 따러드러가안지며

「참! 인제뵈오니 그때뵈옵던로인이시구료 나는그때에 총々히작별하고서울은후아조망연히이젓는대 무삼사로 서울을오시엿소」

빙심모 춘천서풍파를만나 피신차로 갔다가는길에 대관령서 불안당을밧났다 가 대은인을 밧나구함을입고 무사히갓스나 밧고간천정이 타군으로이사하야

업스매 사고무친한곳에서 생활곤란으로 엇지할수업서 기안에투명하였다가 덩감사의게 무수한근육을당할말을 일장설화하니 덕승이듯기를다하고

「사람의급함을보고 구하는것은 인도상에 섯々한일이어날 그무어시 은혜롭다하야 이처럼고생을하며 이만사람을차젓단말이오 듯기에 도로혀 불안막심이요」

「인제는 이늬은몸이 오날죽어도 눈을감겓소 내쌀에평생고락은 은인의게잇사오니 사랑하야주기를바라오 내쌀이라고하는말이아니라 시속녀자와달나추부는면하였사외다」

「천만에말삼이오 나만못한남자가 어대잇슬나고 이처럼하시오 대단치못한일로 나를좃고자함도과도 한일이오 그것들은헤라하야 취함도장부의 섯々한해색이아닌즉 그그런말삼마시오 또는내가이위취처를하였고 겸하야 부모시하에 유취취실함도불가하고 내마음대로한다하야도 부모께서허락을아니하시리니 단련하시오 내참한사랑을한아진권은하리다」빙심모 이말을듯고

락심천만하야 벵々히안젓다가

「에구 이일엇을지하나 삼사년을죽을고생을하며 밧섭도로하야 차저왔다가 오날내쌀에 취후선고를당하니 다산나는죽는것이 앗갑지아니하나 이팔청춘

에 내 딸 죽는 것을 잊지나 보나 에 구머니 하나님 마음소서」하고 방성대곡하니 이때를 당하여 빙심의 마음이야 오작하리오 량협에 눈물이 흐름을 깨지 못하고 춘심도 역시 울기를 마지 아니한다 인비목석이 어던 잊지이 광경을 보고 감동심이 업스리오 동정애 눈물을 금치 못하며 다시 위로한다

「여보우지마시오 내가 거절함은 다름이 아니라 자코로 한지아비와 한지어미 가사는 것이 셋々한 일인데 한지아비가 두지어미와 살고 보면 가덩에 풍파도 일기 쉽고 또 그 썩아니라 부모께서 불운하실 가할이라 내다시 생각하여 부모께 말씀을 고한후 마지리니 안심하시오」빙심모이 말늘듯고 만심환희하여 눈물을 거두며

「인제는 내 딸이 영광의 길을 차졌스며 생명수를 어덧도다」하고 주효를 작만하여 대접한다 덕승이 두어순배마신후 이려서며

「날도 기울었고 또는 이삼친구가 잇서 기다릴지라 아니가지 못하겠기 집으로 가오니 평안히 주무시오 래일 또 오리다」하고 또 빙심을 도라 보고 우수며

「여보 춘천집도 평안이 쉬오 래일이라도 또 청통덩서 만나 봅시다」하고 썩々우스니 빙심은 붓그러워 량협에 도화괴운이 으며 나직 한 음성으로

「네! 안령히 도라가십시오」하며 작별하는 것이 영々 못볼 것갓치 연々 한 빛치

낮타난다 빙심모녀와 춘심이 대문사 싸라나와 전송할새 빙심은 덕승이 가는 양을 문에 가의지하여 망연히 바라보더니 덕승의 형용이 아니 뵈물을 보고 드러가며

「어머니 오날이야 불효를 면하는 날이로 구료」하며 방긋웃는다 빙심모도 역시 시우스며

「오날이야 일만가지 근심이 동풍에 해빙되듯 풀어젖다마는 래두사가 잘 되었스면 조갯는대 부모께서 허락이나 잘하실지 그것이 녀려이다 녀려이다」

「넌러될 것잇습잇가 도시 팔자인데 되는대로 지내시오」밤이 이숙하도록 모녀의 의론이 분산하더라 이때 윤덕승은 빙심모녀를 작별하고 집으로 도라오며 래두방침에 대하여 궁리를 한다

「만일이 일을 부모께 말씀하오면 엄책이나 아니 내릴가 내가 왕에 말씀을 고하였지마는 작첩사자야 될 줄아시나 만일 작첩한 줄아시면 물론 엄책은 배시겟지마는 설마 잊지하실가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오 저이가 나를 바라고 그처럼고 생을 하며 서울까지 온 것을 아시면 도로혀 가상이역이사 쾌히 허락하시리라」이처럼 이리도 생각 저리도 생각하며 짐으로 도라오니 이삼친구가 와서 기다리고 잇다가 덕승을 보고

작을붓친다

「자! 춘천집 우리가 전생연분인지 우연히 대관령산중에서 만난후 피차한마
 모념려마시오」하며 혼연히 주안을차려오라하야 두어순배마시며 빙심과수
 「위선이것으로 시량이나작만하시오 차차압흐로 조흔도리가잇슬것이니 아
 고돈이백원을내여주며
 「네! 아직 엄친제는 말삼을고치못하고 자친제고하였더니 말삼이 아직여차
 가와서 부르는소래를듯고 던지도지하야 나와마지며
 「어서드러오시오 밤사이평안하오 우리모녀는 가신후에 지금것 한잠못이르
 고 회소식만기다리고있다오」

덕승이 다시말엽시 잇흔날 빙심의집으로왔다 빙심의모녀는 덕승을보내고 무
 삼조흔과별이나 잇슬가하고 밤을 새다십히고대하더니 잇흔날아침에 덕승이
 여주고 차々형편보아 말삼하자」

리고보면 그녀자의마음이 결국한것을보면 살니가만무하니 원혼이아니되겟
 는나 아바님제말삼하면 불과이십미만에 어린아해로 작첩을한다면 대경로
 피하사 드르실일만무하니 아직 아바님제 말삼은고치말고 시량범백이나 대
 여주고 차々형편보아 말삼하자」

「아! 인제야오나 무삼이야기를 지금것하였나 대관절갑々하니 어서말이나
 좀하게 녀자든가 남자든가」덕승이는 한마대류루업시 자초지종을다말하였
 다 이때자승이가 엮헤있다가 이말을다듯고속으로
 「그러면그렇치 남자로외양을 그러케쓸수가있나 아모리저의뜻은 그러치마
 는 백부에서 작첩은못하게하실터이니 만일작첩을못하거던 춘삼과의론을하
 야보리라」하고 동정만보고있다 덕승은 바로부친의게는 고하지못하고 모친
 김부인에게사실을고한다

「어머님 전일에소자가 가릉대관령에서 불안당을맛나 내행을구하였다는 말
 삼을고하지아니하였슴닛가」

「그대 내드렸다」

「그내행은 즉모녀이온대 춘천사던사람으로 여차 한일이잇서서 감응으
 로 피신을가라다가 대관령에서 불안당을맛났는데 마침소자를맛나 위경을
 버서난후 그쌀이 무삼일인지 이리 한경우를다당하고 서울까지차와왔다
 가 오날청룡당편사터에서 맛나보고 한가지 그사람의집까지 갔다왔사온즉
 이일을엇지하면 좃슴닛가」김부인이 듯기를다하고 아미를짚기며

「이애그거걱정이로구 나일부할원이면 오월비상이라하는데 만일그녀자를바

대언약도업시 나를위하야 그처럼고생을하였다하니 나는아조모르고있을뿐
외라 망연각지하였스즉 이는가위외쪽사랑이아닌가 참미안한말로할수업
는걸 그러나 만일내가죽고보면 잊지할가?

「일편먹은마음업스면 그고생을하겠슴닛가 만일나의목덕을 달치못하면 한
가지마음이면 아모일업슬걸요」하며 괴색이냉낙하다 덕승이허々우스며

「나의롱담에대하야 불편한점이잇는게로군 응 ! 춘천집」빙심은 다시대답업
시 료리를작만하야 덕승을대접하더라 자차이후로 덕승과빙심의 연々한애정
은 과연엇더하였스리오 호사다마라 덕승과빙심에 무궁담々한 사랑을저희하
야 빙심으로 무한한고초를 격게하는도다 이위에말한바 덕승의사촌아우자승
이라하는자는 위인이비루한중에 화류계에건달로유명하야 부랑잡류에 모를
사람이업다 춘천리춘삼이가 처음서울을나와 러관에투숙한후 러관주인을압
세우고 돈을물쓰듯하며 화류계로종사하니 화류계에 부랑잡류들이 이소문을
듯고 닷도와가며 차자와서 인사를청하며 춘삼에마음을맛초와준다 이럼으로
춘삼은 화류계에 봉이라는일홈을 어뎛스며 건달들은 춘삼이가 부랑도화를
하라하여도 피치못할만치 권위를가졌다 자승이는 춘삼에초종이되어 춘삼의
말이라면 여공불급으로지내더니 청룡당에서 승이가 소년을쫓차감을보고

뒤로쫓고자하다가 덕승이가 동행하던친구더러 짐이가잇스면 사실을알고 곳
감아하는소리를듯고 쫓차가지를못하고 덕승에집에와서잇다가 덕승이가이속
한후도라와 일장설화함을듯고 즉시춘삼에게와서 하나유루업시 이야기하였더
라 춘삼은듯기를다하고 속으로

「응 ! 세상일이라는것은 도시우연치아니하다 내가서울오기는 빙심일너니
대관령산양군까지만날줄 잊지쌍에나 생각하였슬가 오날이야 나의목덕길을
어뎛도다」

하고자승을 더욱천절히하며 자승이 귀에다임을대이고 한식경이나 무어시라
하더니

「자 ! 자승이가 썩하게잇스즉 성사만되면 후이보수하리다」자승은 입이썩버
러지며 허둥지둥

「네네 녀려마시오 그런일이야 내장중에잇는데요 무삼어려움이잇슬가오」

그후로는 덕승에일동일정을 매일람지하여다가 춘삼의게보고를한다 하로는춘
삼이가 자승이더러뭇는말이

「자승이 백부께서 덕승이가 자첩한줄을 아조모르시오」

「우리백부장이 엇더케엄하시다구요 만일알고보시면 집안에는 대풍파가일

필요

「그러면 백모씨는 아시오」

「백모님께서는 아시지마는 감히 발표치 못하시지요」춘삼이가 한참안져서 무삼생각을 하더니 또 자승이더러 무엇이냐고 일너보내더라 자승이가 춘삼에게 교를듯고 잊은날식전에 덕승에집으로와서 윤관관을보고 화려한빛으로 공손이 인사한다

「안영히 주무셨습니까」

「오— 잘 찾는다」

「네— 잘 찾습니다 형이 어제 동대문밖길을 간다더니 드러왔습니까」

「동대문밖세 동대문밖어대를 간다더냐」

자승이가 부러이름— 하는체하며

「글세을시다 각금거기가서 흑자고도 드러온다하기로 어제는 자지안코 바로 드러왔나하고 엇줍는말삼이을시다」

윤관관이 이말을듯더니

「무엇이야 자고드러오다니」하며 바로안으로드러가 김부인을보고

「여보마누라 덕승이가 그저자오 좀불너주오」

김부인은 당황하야 대답을즉시못한다 윤관관이 이거등을보고 더욱의심이 나서

「여보 좀불너주어오」

부인은 엇지할수업서

「지금 덕승이가 업습니다」

「아— 새벽에 어대를 갖단말이오」

「새벽에 나간것이 아니라 어제 동모들이 절노소창을가는데 갖치가서아니드러왔서요」

「소창을가서 소창을가면 엇지하야 나더러는말이업시 젊은아히가 경야를하단말이오」하고 이말저말업시 사랑으로나오며

「덕승이가 드러오거던 사랑으로내여보내오」

이때 자승이는 대강령감의 심점을 이리키여누코 사랑에잇서 동정을살피더니 관관이 도로나옴을보고 일어서 한열해가섯다 관관이 나와안지며 자승을쳐다보고

「자승아 거기안저라」자승이는 쫓구리고 한열해안젓다

「이애 네형이 동문박어대서 각금잔다구하더냐 하나기이지말고 바로말하여

「라」자승이가 또어름 / 하고 대답을 잘 아니한다. 율판관이 화를 버럭 내며

「글세이 자식아 웨말을 아니하느냐」

자승은 경겁하는체하며

「자세히는 모릅니다」

「백모님께서 다아시나보는데오」

「백모아는거슨 백모가아는거시오 네가아는거슨 네가아는거시니 너아는대

로말하여라 자승이가 또주저 / 하고 말을 아니하니 율판관이 더욱로하여담

배대로 재판을치며

「이놈아 이케말을 아니할적에는 무삼비밀한일이잇고나」

「비밀한일이아니을시다 아는대로 대강고하지오」하고 빙심에 이야기를 드른

대로일 / 하고하였다. 판관이듯기를다하고

「허허 이게가운소치란말이나 나는오날까지 아주모르고잇섯구나」하며 로귀

가등 / 하여야 함으로다시 드러간다 자승은 백부의게인사여부업시 바로출삼에게

와서지낸일을다말하였다. 율판관이 안으로드러오더니 안방에가안지며 부인과

자부를불너안치고

「여보마누라는 엇지하자고 이런일을 나모르게하여서 집안을망케하시오」김

부인은천만의외에 이말을듯고 속으로생각한다 「앗가 덕승이를차더니 팔경

춘천집아해일을알고 이리하는것이로다」하며 탄평한안색으로

「령감 그게무삼말삼이온잇가 동류사십년에 이런말삼을 오날뜻사오니 몸들

쌍이엿습니다」

「부인은 도모지생각이엿소 이십미만에 어린아해가 유처취첩이란말이 웨일

이오 이것이 집안패할조짐이 아니면무어시오」

김부인은 안색을 더욱화평히하며

「령감 로하심을푸시고 자세한말삼을 드러보시옵소서」하고 빙심에 지낸력

사를다하며

「령감께서도 중왕에 대관령에서 지낸일을 드르셧시오 사람이 목석이아니

어던 엇지바림닛가」

「아니될말이오 기생이라하는것은 로류장화로 매인열지하는것이 본색이어

날 제가기생삼년에 무삼일이업서겟소 나는이런말아니보오 성인말삼에 이

십이관하고 삼십에취처라하섯거날 이십에유처취첩이란 될말이오」하던차

덕승이가 박으로드러오더니 율판관에 로귀가등 / 함을보고 감히인사도못하고

두손을마주잡고 한구석에가섯다 율판관은 덕승에드러움을보고 로귀가 더욱

등々하야 쳐다보며너

「이놈너 어대가서 자고드러오느냐」

덕승이속으로

「을타이일이 발각이되었구나」하고 즉시업해가 업대여대죄한다

「불초자의불효는 죽어맛당하오며 자세한일은 어머님께서 다아시오니 자세히 아라보시옵소서」

「첩이라하는거슨 망가지본이라 국가이나 사가이나 왕々히 첩으로인연하야 망함을 손꼽아셀수가업나니 허물며 너는이십에청년으로 유치취첩이란말이 웨일이냐 이는망가지본이니 네가 만일아비에 말을쫓치면이어나와 쫓지아니하면 나는너를자식으로 아니알것이오 너는나를아비로 알지말지어다」 덕승이업대여 썰나는음성으로

「삼가명대로하오리다」윤판관은 한마대로 춘절이썩짓고 사랑으로나가바렸 다 덕승이가 모친을쳐다보며

「어머니 이일을 엿지하면 쫓습닛가」

「글세 엿지하면 쫓란말이나 아바님성미에 다시거천하는길아시면 참그때에 는 더말할수업는일이날터이니 그아니걱정이냐」

「그러하오면 엿지하야 쫓습닛가」

「더말할것업시 생활비나 녀々키주어서 그정을표한후에 다른대로 깨가틀하 던지 우리가알거시잇느냐」

「소자의생각갓해서는 깨가할위인은아니에요」

「한번가보와서 위인이말과갓든 말삼을고코자하였더니 엿더케아시고 그 리하시는지모르겠다 심여일썩되는데 제마음이 과연듯던말과갓흐면 변개가 업슬거시니 차々보아서 다시조홀도리를하야보았구나」

「글세요 어머님말삼대로하기는하겟습니다마는 어려운일이잇사외다」

「무삼일이 어려우냐」

「아바님말삼이 그처럼엄절하신대 그생활비라는것을가지고가면 이리해서가 던지 저리해서가던지 가는것이아니온잇가 가고보면 이는하날을속임이나 이일을엿지하면쫓습닛가」

「그야 한번갓다오는거시 무삼죄란말이나」

「한번가나 두번가나 가는거슨 일반이아니온잇가 어머님이 제처를다리시고 가셔서 자제히말삼이나 일으시고 오시는것이 편할듯합니다」

대체덕승이로말하면 그런々한애정이업서 다시아니보고자하리오 그런애의심

정은 더욱간절하고 애처로우나 그 위인을 모친과 그부인도씨도한번보와 사랑하고 앓가운마음이 감동되게할이오 또는가서보고는 참아손을난을수업습이오만일도부인이 현숙지못할것가트면 이런말을아니하겠지마는 이왕도부인도빙심의일을알고 덕승을원고하야 취캐한터이러라 도부인이업헤잇서 전후말을다듯고 참아윤관관의게는말을못하고 김부인세말삼을한다

「어머님 지금아바님말삼이 첩으로 왕々집안이망한다하심은 처첩사이에 그질투로 풍파가이러나는 연고가아니오닛가 소부가 비록불만하오나 넷날태사에 본을밧고자하오니 다시아바님께 말삼을고하야 다시처분을물음이 조홀가하나이다」

「네말도를라마는 사람이란그마음을 척량할수업나니 너는비록착할지라도 한사람의마음이야 알수잇느냐 도시불가한일인즉 일이부르트는김에 아조처치하면 뒤에염녀는업슬것이니 우리가서보고 조흔말로일너서 다른대로개개케하는거시죇타」하고잇흔날 은자오백량을 관관모르게 싸가지고 빙심에집으로왔다 이때춘심이는 서울은후로 윤관관집을오고십흐나 윤관관이 춘심을보고 흑무슨말각이나 잇슬가하야못갓더니 천만뜻박게 누가밧그로 드러오는데 암선니를보니 김부인이라 춘심이뛰어나와마지며 반가히

「마님 그동안안령하십시오 춘천서뵈옵고 인제야뵈옵니다」김부인이 이말을듯고 마음에이상하야 한참보더니 잠작놀나며

「아!네가 춘심이가아니나 웨일이야」

「네춘심이을시다 서울은지가 여러달이되여도 한번못가서뵈옵기는 부득이한사정으로못갓습니다」하고 급히빙심을부른다

「아씨! 큰댁에서 마님이오섯습니다」

빙심은방에안져서 침선에골몰터니 큰댁마님이오시엿다는말을듯고 반가온중붓그러온마음이 압서나오지못하고 빙심모가 급히나와마지며

「어서올나오십시오 먼저가서 뵈을것을 이처럼왕림하시니 황송무지을시다」 김부인이 춘심을도라보며

「이어른이 누구시냐」

「자근아씨 어머니십니다」김부인이 춘심에말을듯고 빙심모를 다시쳐다보며「별말을다하오」하고 빙심모에인도로 방으로드러가니 빙심은안젓다가이러

서말업시맛는다 도부인은 시모를 싸라드러가며 빙심모와 빙심을 살펴보며 김부인업헤가안젓다 김부인이안지며 빙심모를바라보고 빙심을가라치며

「저애가 당신딸이오」

「네! 그것입니다」하고 빙심을 도라보며

「이애아가 사어머니께서 오셨스니 뵈여라」빙심이 가 김부인 압흐로와서 나
라갈듯이 절을하고 뵈은후 한옆헤섰는데 김부인이 도부인을 보며

「너도 상우레나 하여라」도부인이 김부인 말삼을 듣고 빙심을 쳐다보며

「자네가 춘천서 온 사람인가」빙심이 대답하기 전에 빙심모가 먼저 김부인에게 묻
는다

「이아씨는 누구세요」

「응! 나의 큰며나리오」

빙심모 황망히 도부인께 인사후 빙심을 재촉하여 인사를 하라고 한다 빙심이 즉
시 도부인을 향하여 처음 보는례를 행하니 도부인이 이리답례후 각자 자리를 나
와 김부인 좌우에 갈나안지니 김부인이 빙심더러 묻는다

「너는 저만인 물을가지고 어대너의 남편이 업슬나고 하필장가든 우리댁서
방님을 좃고자하야 무수히고 초를바다가며 서을싸지 을나왔느냐」빙심은 아
모대답도 못하고 다만 양협에 후후를 씨엿스며 빙심모가 즉시대답을한다

「참! 무르시니 말삼이올시다마는 내외라하는 것이 남스제리만나사는 것이
은대 빙심이 로두고 보면 아마연분이라는 것이 있나보와요」하고 그동안 지내력

사를 일장설화하니 김부인이 다듯고 칭찬하기를 마지아니하며

「그애의 지내일을 지금 자세히 드르니 참! 가상하오 그러나 내가 지금 오기
는 처음점마지막점보러왔소 그대듯기에 매우 섭섭하겠지마는 가할한사랑을
다시 택하야 자미를 못치면 자연전사는 잇는 법이오」

하고 윤관관에 엄책하든말과 덕승이는 다시 못오게된말을 일장설화하고 돈오
백원을내여주여주며

「이것이 약소하나마 정을표하야주는 것이니 생활에 보래여쓰고 차차 조흔데
를구하오」

이말한마대에 빙심의모녀는 청련에벽력이내린듯 정신이아득하고 가삼이답々
하야 아모말업시 맥々히안졌더니 빙심모목을늦코운다

「에구머니 이말삼이 엇지한말삼이오닛가」한마대에목이메여 다시말을못하
고 방성대곡하며 빙심은이말저말업시

●「저는 출부의죄지은일이업습니다」하고목을늦코 늦기는대 양안에흐르는눈
물은 새암솟듯 화려한옥안은 전혀푸르고 찬기운이가득하니 그참혹하고 가련
한현상이 청춘에과부가아니면 실련락망한녀자됨이분명하다 김부인과 도부인
도 이형상을보고 동정에 눈물을검쳐못한다 도부인이 빙심에손목을잡고흔들며

「여보게 빙심이 < 울음을 닦치고 내 말을 듣게」 빙심이 눈김을 닦치고, 눈물을
을 써스며

「내! 말삼하세요!」

「너자의 마음은 일체라 지금자네에 눈김을 보니 나의 마음인들 조흔수가 있나
내아 못조록 말삼을 고하여 자네로 하여금 실망에 아니 빠지도록 하리니 관심하
야래 두사를 보게」 빙심이 도부인의 말을 듣고 안색을 다시 곳치고 이러절하며
사례한다

「처첩은 적국지간이어날 오날아씨의 말삼을 듣사오니 비록 머리를 베혀신을
삼아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겠나이다」

「처첩적국지간이라 하는 것은 그 지괴 불합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지 피차지괴만
상합하여 서로 보라 하면 그와 갓갓가을 것이어대잇나」

이갓치위로하며 김부인도 역시 두어마대로 위로한후 도라가니라 빙심모녀 김
부인과 도부인을 전송하고 안으로 드러와 김부인의 관후함도 칭찬하거니와 도
부인의 현숙함을 더욱 탄복하며 덕승이 오기만 하날 제축수하더라 이때 김부인은
도부인을 다리고 집으로도라와 덕승이에게는 아조남이 되고왔다하여 련애에 심
동을 단련케하고 은근히 시모녀가 윤판관을 아모리 달내이며 간하되 윤판관은

조곰도 요동치 아니하며 도부인이 일계를 생각하고 금냥에 비계를 녀서 빙심에게
보내니라 빙심모녀는 매일 희소식을 고대 < 하더니 하로는 엇더한하인이 금
냥한아를 갖다 전하며

「다 동윤판관댁 아씨께서 전하고 오라하시기가 젓왔사오니 자세히 바드십시오」
하고 가거늘 빙심이 급히 바다 금냥을 열고 본즉 일봉서 드렸거늘 썩여보니 대강
하엿스되

「내그대와 적국지간이라 그대의 위인을 사랑하여 정의를 통정치 아니 할수 업서
시아바님께 무수히 애걸하고 간하되 중시 불응하시니 내하 < 오 천만사려하
여도 백계무책인고로 일계를 생각하고 이에 응지하노니 비록 처음은 고생이
될지라도 최후는 락을 보리니 힘써 행할지이다 매년 륭일을 당하면 시아바님께
서 안변석왕사에 피서하사 팔월께 나오시니 여차 < 하면 아마희심이 되실가
하노라」 하엿더라 빙심이 보기를 다하고 하날을 우려 < 탄식한다

「막명한 빙심은 전생에 무삼죄로 액화가 이대지래 심한고 내죽기를 두려아니하
거던 이만것을 엇지고 새이라 하야 도부인에 명감을 좃지 아니 하리오」

하고 도부인을 무수히 탄복하며 모친더러 도부인의 밑계를 대강 < 고하고 춘
심과 남복을 다시 환착하고 안변석왕사로 행하니라 이때 최춘삼은 윤자승을 리

용하야 덕승과빙심의 련애를저희하고 덕승의동정을탐지하더니 이때는맛침오
월그음이라 윤관관이 석왕사로피서갈새 덕승이배행하야가는지라 자승이가이
말을 춘삼에게전하니 춘삼이듯고

「올라인제는 덕승과사랑을 받을뿐이라 덕승은이위안편으로갓스니 이때를
타서 일을도모하리라」하고 자승이의게못는다

「전일에 형님과동문박게 가본일이잇소」

「네 한번가서 본일이잇소」

「그러면 자승씨를아라보겠구료」

「아다뿐이겟소」

춘삼이대희하여즉시자승의귀에다압을대이고 멧마대비게를일너주었다 자승은
비게를바다가지고 바로빙심의집을행하고 춘삼은영도사심수한곳에 로연을배
설하고 자승이오기를고대하고있다 이때자승은 빙심의집에당도하야 문전에서
괴침두어마대를꼭々하고 바로안으로드러섰다 빙심모는 빙심을보내고 혼자안
저서 장우단탄으로 흑빙심을원망도하며 흑무사히 석왕사에게서 성사하기를
축수하며 흑도부인의 현숙함을감탄한다

「이년은 엇지된년이기로 부호자제와 수령방백다실타하고 하필윤씨만위하

야수절이니 목절이니하며 어미까지이런고생을식하나 아마도전생에 무삼업
원으로 생긴자식인게야!」하며이갓치 혼자짓거리고안저서 괴탄중인대 밧
그로기침소래가들리며 엇더한남자가 마당에드러선다 빙심모쌈작놀나 마루로
뛰어나오며

「누구요 남의집을 막드러오는니가!」자승이는 조금도 서슴지안코

「네 내오」

「내가 누구란말이오」

「대관절 춘천집잇소」

「누구길네 춘천집을찾소」

「나를물나보는구료 나는덕승씨의 사촌아오되는니오」빙심모 덕승이의 사촌
아우란말을듯고 반기며 무삼회소식이나잇나하고 급히마루로 청해올니며

「네 서방님이심닛가 늙은사람이라 한번되온고로 눈이무되어서 몰나되왔
슴니다 무삼일로 오섯서요」

「네 마누라님 싸님보고 할말이잇서서 형님의심바람을왔스니 싸님을좀청
해주소」빙심모는 이말을듯더니 재로히 한숨을취이쉬며

「무삼반가온일이잇세요」

「네—인제는 일이 다 좋게 되었소」
빙심모 말을 동그스글으며

「조런복철보와 하로만있다가도 조흔걸그리했지」

「웨—어대갓소」

「어적게 안변갓다오」

자승이속으로 은근히놀내며

「안변은웨갓소」

빙심모 바로말을하랴다가 속으로 문득생각하되 아모리 사촌이지마는 세상인
심은란척이라하야

「알수업세요 무삼일로갓는지요 그런데 덕승씨는 어대게심닛가 나라도가서
뵈옵고 속사원한말삼이나좀듯게요」

「짜님이업는데 마루라님은 갈것업소」하고 인사도업시급스히나간다 빙심모
는 자승이가 황스히나감을보고 속으로 일만가지의심이 만수삼에구름솟듯

한다

「이상한일도만라 표부인이것호로 착한체하고 거짓비게를가리쳐 안변으로
가게하야 흥계를삼이엿나 사촌으로말하면 형의심바탐을왔스면 자제한말도

듯고 자제한이야기라도하고 갈터인데 업다는말을듯고 황스히가버리니
역의심이되는도다 암만생각하여도 이번일이 흉다길소하다」

하고말을듯치못하더라 자승은 급스히 영도사로와서 춘삼을보고 안변으로갓
다고말을전함에 춘삼이듯고 속으로역시의심이난다

「자승이 말갓해서는 덕승이가 아조남이되엿다하더니 덕승이가 안변을가자
춘천집쫓차갓스니 자승이놈이 나를속이고 금전만빼서 먹자는계교가아닌가
내이놈을 단스히무러보아 조금이라도 의심점이잇거던 분푸리를하고 춘천
집을쫓차가보리라」하고천연히 아모사색도아니하고못는다

「여보게 자승이 춘천집이 어느날 안변을갓다하든가」자승이속으로 또의심
이난다

「이사람이 전일에는 서로경대를하고지냈섯는데 오날은별안간하게를하니
웨일인가」이갓치생각은잇스나 원래금전으로인연하야 춘삼에게 알기가된
터이라 로이불감언로 역시하게를 못못치고 대답한다

「어적게갓다고합디다」

「덕승이는 어느날갓나?」

「한—얼흘가량되지?」

「네! 나도 알수업소 이왕안변을간다고하더니 나도모르게갓스니샤 동행이몇인지 무삼복색을하였는지 알수업소 그런대덕승씨는 왜 못오신다고 합닛가 나와갓치갑시다」 하며 자승을 따라나선다

「형님이 인제오실터이니 갓치갈것은업소 엇더케하고갓것이나일너주오」

「내가 천히덕승씨를보고 말할터이니 갓치갑시다」 하고말을하니 하니자승이가 백단으로무려보다가 하는수업시 즉시춘삼이게와 사실대로말을하였다 춘삼은 무명업화가 삼천장이나이러나서 두주먹을불끈쥐고 자승의쌈을나라가듯치며

「이놈아 내가네죄를물으느냐」 하고따리니 자승이는 두쌈을 부둥켜쥐고 쌍에가업퍼지며

「이놈이 사람죽인다 이놈아 내가무슨죄이나」

「이놈! 너는무의무신한놈이아니냐」

「무엇이무의무신하냐?」

「이놈! 말드러라 금전에팔니여 가내사를 외인에게 밀통하야 형의첩을리간하였스니 이는무의오 형의첩을빙자하고 친구의돈을편취하며 비밀사를거짓꾸미여 친구를속였스니 이는무신이라엇지너갓흔놈을세상에머물너두랴」

「춘천집은 멧사람이나 동행을했다든가」

「그것은 멧쳐못무러보왔소」

「그런데 덕승이가 아조절족이라하드니 안변은엇지하야 다리고갓슬가?」

「그역시 나도의심이오 절족하고 아니가는것은 내가분명히아는터인데 아모리생각하여도 알수가업소」 춘삼이가 자승이를당장 타살을하고싶흐나 문득한일을생각하고

「여보게자승이 지금다시 춘천집가서 멧사람이나 동행을하얏스며 복색은엇지하고 갓나아라보고오게」 자승이 아모말업시즉시 춘천집으로와서 빙심모를보왔다 빙심모는 자승이가다시움을보고 덕승이가무삼일을 일너보내었나하고 반가이웃는다

「서방님엇지해 또오시엿소 형님께서 무엇이라하십닛가」

「네! 형님께서 무삼일로 안변을갓스며 멧사람이나 동행을하얏스며 복색은엇지하고갓나 아라보고오라하십닛다」 빙심모 이말듯고속으로

「만일빙심이와 다시살고자할진대 빙심이가 안변갓다는 말을드르면 즉시천히와서 무러볼것이어늘 아우를보내여 무를리가잇나 중간에무삼곡절이잇도다」 하고

하고춘천서 갖치온수삼동류로 힘껏두다리니 자승은 강약이부동으로 할수업

시마자승림속에겨썩러져서 괴색을하였다

춘삼은 자승의괴색함을보고 즉시행장을단속하고 안변방면으로행하니라 이때

방심은 묘부인의밀계를바다가지고 춘심과안변석왕사를차갈새 여러날만에

한곳을당도하니 암석상에흐르는 폭포는 쌀々소래를쳐 구비／＼흘니 오색안

개를도하며 울々창々한송백사이로는 진금리수가 무리／＼ 짝을지여왕래하고

좌우변수양사이로는 앵무황앵이짓거린다 빙심이춘심과갓치 금잔디에가주

저안저 원근경물을구경하더니

「허々 만물지중에 사람이최귀라하는데 박명한빙심은 미물의금수만도못하

도다」

하고다시이러서 안변방면을향하고가는대 김히드러갈수록 송백은참련하야 하

날이아니되고 들니는이 바람소래와 짐승에소래섞이오 송림사이로 빗치는일

색은서으로기우러졌다 자연가삼이두근거리고 송구하야 무서운생각이 드러

급히인가를 차저가고저하는대 흥연뒤로쫓차서너사람이 총々히거러오더니빙

심의일행을보고 그중한놈이 압홀탁막어서며

「허々 그간평안하오」

무인심산에서 이러한광경을당하니 남자라도 엇디한사람인지 몰나송구할것이
다 그러나빙심은 섬々약질로 춘심이하나만다리고나설때에 성사가되면되고
안되면죽어이세상고해를버서나기로 작정한터이라 비록맹호가 압홀당도하야
도 두려아니할만치 마음을먹은터이다 조금도두렵업시 탄평히대답한다

「당신이나를 언제보와서 인사를하시오」

그놈이 겹々우스며

「그러치 나를못아라보리다 서울청룡당활터에서 인사한생각이아니나오」

빙심이속으로

「에구머니 악마가 또닥쳤구나」

하고쳐연히대답한다

「나는 서울간적도업는데 아마당신이 잘못아시나보외다」

「허々 옛날묘자룡이는 도시담이라하더니 오날춘천집이야말로 도시담이로

군—나는누구인고하니 춘천선교사는리춘삼이야 대관령에서 너로인하야 하

마하더면 죽을겉면하고 삼년을알은후 너를쫓차 서울까지가서 허다한금전

과 심력을허비하였다 오날나의말을듯고보면 장래행복이 무궁하려니와 만

약에아니듯고보면 최후에수단을 쓸것이니 엇지할테이나」

심산궁곡무인처에서 사자갓흔악마를 당한빙심의 사정을 누가 알리오마는 지공 무사하신하나님은 인간을고로삼히사 선한자를구하시고 악한자를중계하시나 니엇지무심하시리오 필연도음이게시리로드 이때빙심이 춘삼의 일장설화를듯고 「올라! 악마갓흔저놈이 대관령에서 나를겁칙하였구나 내순천서도 리춘삼 의불량함을드렸지마는 이와갓치 불량할줄아릿스라 오날이 내가이세상을떠 나는날인줄 엇지아릿스리오 나죽는것이 앓갑지아니하되 로모써서 나를보 내시고 손꼽아가다리실터인대 엇지눈을감고죽나 이세상에나서 부모에게불 효요 가장에게쫓긴배되니 죽은혼이라도 붓칠데가엎스리로다」

하고악이밧삭나매 무엇이두려우리오 소래를질너썩짓는다
「이놈아 네가리춘삼이라니말이다마는 나는춘천서부자로 처첩이갓거늘 무 엇이부족하야 남의집귀수를겁칙고자하며 지탈를쓰고 산중에서 불안당짓은 하느냐 하날이소사하사 런별로삼년을알코 명이부지하였거든 전허물을회개 치못하고 또이련악사를감행하느냐 갓악이부동으로 내가오날니의게죽는다 마는 죽은혼이라도 너를만단에내리라 일지라도 너갓흔악마는 대면키지르 니어서죽여라」
하고악을쓴다 춘삼이 어이업서 허우스며

「고년! 참방자무쌍한년이로군」

하더니 달녀드러 빙심을 나무에잡아매고자한다 춘삼은 엽해서 별々떨고섯다 가이광경을보고 압홀막아서며애걸한다

「여러분살녀주소서 우리는아모죄업습니다」

하며 한사코압홀막는다 그중에 한놈이다라드러 춘삼을잡아나구나 엇지당하 리오 으악소래한마대에 거구러저기색하였다 빙심을나무에잡아매고 류철포를 내여견우면서

「네가 오날내말을 아니듯고보면 이것한방에 이세상에 모든행복을바리고갈 터이니 엇지할터이냐」

빙심이눈을감고 그림갓치 나무에붓터서 소래를지른다

「이놈아 어서죽여라 잠시도 그더러운 말듯기실타」하는소래 뜻치자마자 어 대로쫓차 총소래가

하며 춘삼이가 뒤로근두박질을쳐жат바진다 이때빙심은 춘삼이가 늦는총소래 로듯고인히괴절하였고 춘삼일행은 난대업는총소래에 춘삼이жат지는것을보고 혼비백산하야 죄우를들너보니 송림사이로 수삼인이 총々거러내려오며 그중

압선사람이 총을 메고오다가 또한방을 썩— 늦는다 춘삼은그냥겨구러잇고 동행하였던놈들은 다라나더라 총맨사람이 빙심의압호로오더니 괴색한빙심에 맨 거슬썰으며보다가 잠잠놀나 동행을시키여 물을떠다먹이고 사지를주물너주며 회생기를기다리더라 대저이사람은윤덕승이라 덕승이가 빙심과 사랑을얻어바리고자연마음이 산란하여하다가 부친이 석왕사로피서가매 이삼동지로작반하야 부친을배행왔다가 수삼일을머문후 상경하는데 맞침세포(洗浦)근처를당도하야송림사이로 멀리바라본즉 엇더한놈들인지 한사람은 쌍에겨구러젓고 한사람은 나무에잡아매고 룡혈포를견우며 위험하는모양이어늘 덕승이가뒤를도라보며

「여보게—도군—여기까지오도록 도계한마리산양을못하더니 아마사람산양을하나보이」 도군은 즉덕승에차남이니 명은병필이라 남매간지괴상할하야 어대를가던지 작반을한다 병필이가 덕승에말을듯고 잠잠날나며

「응—형님그게무슨소래요 사람산양을하다니」 덕승이가 손으로춘삼잇는데를가라치며

「저기저것을보게 필경도적놈이 행인을위협하는것이아닌가 한사람은엮푸러젓고 한사람은 나무에매여늦코 룡혈포로 위협을아니하나 자보게—」

하더니 한방을노으며 총소래를응하야 룡혈포든놈이 잣바지거늘 덕승이가 일행을급히휘동하야 좃차내려와 남은놈은다좃코 나무에매인사람을풀며보니 천사만사외에 사랑이갑든빙심이라 잠잠놀나 급히물을먹이며 사지를주무르니 한식경은잇다가 정신을차리는중 춘삼이가 먼저정신을차리여 눈을뜨고보니 빙심을주무르고 구호하는사람이 윤덕승씨분명하다 춘삼이압호로다라들며

「서방님 이것이살이온잇가 생시온잇가 다죽은사람엇지아사고와서 구하심닛가」

빙심이 겨우정신을 수습하는데 춘삼의말을듯고 눈을떠보니 오매불망하던윤덕승이라인하야말엽시 엽대여늦기니덕승이도 역시 정신이어수선하야 엇지된일을 깨닫지못하고 한참을병사히안젓다가 빙심에역재를 잡아흔들며

「여보게—춘천집이일이웨일인가 나역사살인지생시인지 분간을할수업네그려」 빙심이 겨우눈물을겨두며

「첩은던디간 용납지못할죄인의외다 모진목숨이죽지는못하고잇더니 천만의외에 도부인이 현숙하심을로 여차—히비계를 가라쳐주시기에 한번행하야 다행이계교가바로마지면 서바닐과 쓰너젓던인연을 다시이여 행복의맛을볼것이오 만일불여의하오면 안변대해에 빠져후생에나 다시미진한연을매

질가하고 석왕사를차자오다가 맞침리춘삼이란놈을 만나 거의죽을것을 하날
이유의하사 상공이 쫓구하심을입사오니 아마도 상공과 이생연분이 미진한
가보외다」

하며 일변으로는반가와하며 일변으로는 애연히슬퍼함은 철석같은간장이라도
다독는다 덕승이듯기를다하고

「허々 빙심의마음을 내가모르는것이아니오 빙심이가 내마음을모르는것이
아니지마는 부명이엄절하심으로 부득이잠시사랑을받았다하나 나도뒤일을
궁리중인데 천만의외에 큰집이서 그러한계교를이르드라니 아마도 우리의
사랑이 아즉 끊어지지 는 아니하였나보다 아모조록안심하야 비계대로행하면
조흔도리가잇스리라」하고급히 썩구러진춘삼을가서보더니

「대개이놈이 그러한행위를하던놈이로다 서울서도리춘삼이라하면 비평이만
히있더니 이지경까지 나의게이를줄엇지생의하였스라」하며 총마진데를보니
가삼이마지였는데 당장에숨을모는종이라 아모리원수지는사람이라도 그죽는
것을보면 천연한마음이감동됨은 인지상정이라 덕승이추연하야 총을바로논것
을후회하다가 다시금생각하고 춘삼을 손으로가라치며

「이놈 너는죽어도 나를한치말나 너는나의죄악으로죽는것이오 내가죽임은

아니다 만일내가조곰만더디왔서도 착한사람이 너같은악마의손에죽엇을것
이라 소々한하날이도으사 선한사람을구하지고 악한사람을 중계하심이
다」하고 다시빙심과춘삼을다리고 안변방면으로 다시행할새 덕승이생각하
기를저놈의여당이 필경이산중에숨어잇슬지라 우리동정을볼러인즉 만일우리
가호송치아니하면 여당의화를면치못할지라 이에빙심과의론하고 빙심을석왕
사동구까지다려다주고 서울로다시행할새 빙심은또새로리별을당함애 애연히
덕승을쳐다보며

「안령이올나가세요」

하고 고히눈에서 뜨거운눈물이 하수와갓치 흘러나림을 깨닫지못한다 덕승이
도동정에눈물을씩리고

「다시맛나 일후이런이야기를하면 이는괴연이니 상심치말고 보중하야아 버
님만 회심하시도록하게」

하며 총々히행하더라 빙심은 덕승을차별하고 석왕사에드러가 주지승을차져
보고 불전에기도왓음을말고 이날부터 주야를불깨하고 불전에기도한다

이때에 윤편관이 덕승을을녀보내고 홀로안저고서에잠심하더니 때는맞침륙월
십오일이라 지리한장마에 편만하는혹운은 서풍에물녀가고 명낭한달이벽공에

소스니 월색은법당압해가득하고 신선한바람은 법당첨전에 풍경소래로아올니
여러날을적하던 흥금을청결이써서준다 윤관관이 법당압해에서거닐며 월색도
구경하고 신선한바람도마시더니 흥연법당안으로쫓차 사람의소래가들님으로
가만히귀를기우고드른즉 연々한녀자의음성으로

대자대비하진부처님이시여 병심은전생에무삼죄로 이세상에래여나서 윤씨
댁출부가되엿나잇가 이세상에서 인연이다하엿거든 후세에나 른々한가연을
접지하사 무궁무진이원을풀게하소서

하니 낭낭한음성에 숨음이흔성되여 무심이듯는사람도 동정에감누치못할네라
윤관관이 도로사청방으로도와 속으로흔자무수히괴탄한다

「허허 그뒤집녀자로출부가되엿나 그음성과축사를듯건대 출부의죄를지를녀
자는 아니겠는데 아마 뉘모함에빠져 무죄히쫓기여난것이분명하도다 엇더
한사람의집인지는모르되 아니되엿다 일부합월이면 오월비상이라는데 청춘
의녀자로 이런절간에와서 저와갓치할때에는 그집안가덩이야오작하라」하고
이밤을그럭저럭지내인후 잇는날주지승을보고못는다

「여보대사—내가간밤에 달도밝고바람도서늘하기로 울적함을제어키위하야
법당압해서배회하다가 드른즉 엇더한녀자의 축사하는소리임으로 그사의

가 매우처량강개하니 엇더한녀자인요」

「녀자가아니오 남자가두리왔는데 경성서왔노라하고 심여일전부터 주야를
불게하고 불전에괴도하나이다」

윤관관이 대사의말을듯고 속으로

「내 정령 녀자의음성으로드릿스며 또는축사가 윤씨댁출부이니 하는소리를
드릿는데 남자란말이 웨말인고 가장과상하도다」

하고또다시 대사더러못는다

「남자이면 외양과 행동이 엇더합닛가?」

「소승이 사람을 남녀물론하고 만히보왔스되 지금괴도하는 남자와갓치절묘
함은 처음보왔사오며 그행동도엇지단야한지모르겟세요」

「복색은 비록남자이나 녀자가분명하오하괴도하고나오거던 내게로인도하
야 한번보게하오」

「네—그리하오리다」

하고나간후 윤관관이 소년오기를고대한다 대사가 병심의조반을과하고 법당
으로드러감을보고 급히청하여말하되

「서울사시는 윤관관께서 폐사에와서 피서중이신데 두분을좀되옵고자 하시

니 잠간 윤관관을 가서 뵈옵이 엇더하심닛가

「윤관관이 뉘신지 모르오나 잇처럼 보고자 하시는 것을 못가서 뵈오니 대담황 송하오나 괴도중에는 타인과 대면치 아니하나이다」

「그러시다니 다시 권치는 못합니다 마는 한번 가서 뵈옵는 것이 조출듯합니다」 하고 윤관관을와서 보고 빙심의 말대로 고하니 윤관관이 우스며

「무삼구괴함이 잇스리오마는 저의 본색이 탈로 할가 함이라 내져 녀승사 하야 가서 보리니 대사는 또 다시 말을 하여 보라」

하더라 이때 빙심이 대사에 말을 듯고 춘심으로 더 부러 사처로와 안지며

「이애 춘심아 지금 대사의 말이 윤관관께서 보자고 하신다 하니 우리 인줄 아시고 보자고 하시는지 알수가 업구나」

「글세을지다 또 보자 하신다 하거던 제가 가서 뵈옵겠습니다」

「윤관관께서 너를 아시지 아니하느냐」

「아시기야 하시지마는 복색이 달녇스즉 엇지 알실나 구요 아세도 무방하지요 실상 생각하면 아시는 것이 더욱 좃습니다」

이와 갖치 이야기 하는 중 어연간 지리한해 도서 산으로 머니 가매 사중이 저녁 재를 치노라 분주하다 이때 빙심이 사처방으로 내려와 저녁 재를 먹고 막이러서 법당

으로 가랴 할지음에 대사는 압흘서고 윤관관은 뒤를 서서 빙심의 사처방으로 오는데 빙심은 붓그림을 못익기여 옥안에 홍도색을 물드리엿스며 춘심은 황망히 엇지 할 줄 모르는데 대사가 빙심을 가라치며

「저량반께서 요사이 불전에 공양하시며 괴도 하신담니다」

윤관관이 압흐로 오는데 빙심은 도라 서서 자세히 못보고 춘심을 보더니 삼작 놀나며 「이 소년이야말로 낮치 때 우익은데 복색이 달나 모르겟스나 그대가 춘천사지 아니하오」 춘심이 얼는 아라 봄을 탄복하고 즉시 내려서 절하며

「과연 춘천사던 춘심이올시다」

윤관관이 다시 반기며

「글세네가 춘심이 갖다 마는 무삼 일로 남복을 하고 여기 와서 부처님께 괴도를 하느냐」

춘심이 하날을 우러러 축수한다

「우리 아씨의 정성이 아니면 엇지 부처님이 감동하사 이 갖치 지도를 하시릿가」 하고 다시 설어 안져서 빙심의 지내 인바 려사를 일일히 다고 하고 빙심을 도라 보며

「아씨 시아 버님 되시는 령감 마님이시니 뵈옵소서」

빙심이 몸들 데를 몰나 어줍어 하며

죄을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이위내여쭙긴출부가되였스니 엇지감히죄오랴」
하고일골을드지못한다 윤관관이속으로

「대채 세상에 회한한일도만도다 대관령에서구하야죽은 용혹무피어니와 세
포서또구함은 텃텃한연분이아니면 엇지이러하리오」
하고빙심을보며

「이애아가 이리오니라 어대보자」

빙심이보자는 명령을듯고 압흐로와 절하야죄은대 윤관관이 빙심의 용모를살
펴보니 현숙한덕색이외모에나타나 도부인과일호를임이업다 윤관관이 혼연
히우스며

「이애아가 고생도팔자이오 호강도팔자이라 너의오날이고생이 다—나의준배
나 마음에조금도서워마라 나는내가기생출신이라하기 자세한말은아니듯고
네남편되는재 젊은아해로 기생작첩이불가하며 마음이호탕할가하야 그리함
이러니 오날너를보니 도로혀 후회가난다 그러나 서방남아가 너를세포서
죽을걸구하였스면 갖치아니오고 너의들만 오게하엿단말이나」

빙심이 고개를숙이고 공경하야대답한다

「그시에 서방님말이 아바님명령이 엄절하신즉 다행히 여기서맛나 위급할

을구하엿스니 갖치갈수는업다고 서울로바로가나이다」윤관관이 혀를차며
「일은그러하나 너가흔약질을바리고간것은 좀인정에박하다 그러나무사히여
기서 나를만났스니 이제야압흐로 무삼고생이잇스라 너는안심하고 그간피
곤한몸을 수양이나하엿다가 나와가치 서울로올나가자 올라가기전에 서방
님아이도 또오리라」하고위로하니

이말한마대는 빙심의 사오년씩고씩어매진 늑김을다써서바리고 텃사가생명을
주심으로다 이날로부터 빙심은 춘심을다리고 동々축々하며 윤관관의 조석공
괘를지성으로하더라 이때덕승은 빙심을구하야 석왕사까지 다려다주고 서울
로올나와 모부인과 도부인더러 빙심의구한말을하며 회한함을일컫르더라 이
후로덕승은 빙심의일이 엇지되였는지 몇철이못되어 내려가지못하더니 쌀은
것은세월이라 그럭저럭칠월초승을당함에 덕승이 행장을수습하야 석왕사를당
도하니 사랑하는빙심이가 나와반기는듯하다 급々히 부친사처로드러가니 빙
심과 춘심이 부친을시립하엿더라 이때를당하야 덕승과빙심두사이의 마음이
야엇다하리오 덕승은본체만체하고 부친제절하야 문후한후 집안이다무고함을
고하고 시립하엿다 윤관관이 덕승의고함을다듯고

「이애—너저애알겠나」

빙심이수명후 구고를효도로섬기며 도부인을공경하야 일호도래만함이업시 동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빙심이수명후 구고를효도로섬기며 도부인을공경하야 일호도래만함이업시 동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빙심이수명후 구고를효도로섬기며 도부인을공경하야 일호도래만함이업시 동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덕승이빙심모를다리고안으로드러가전후말을다하니빙심모의환련희괴함이야
 엇지일필로괴록하리오 즉시가장좁물을수습하여가지고 재로배치한집으로와서
 김부인과 도부인께 후덕을만사치사하고 빙심의오기를 손꼽아기다리더라 어
 연간철월그음을당하였슴에 덕승이 석왕사에게서 부친을뵈시고 빙심과갓치
 올라오니 빙심모녀의 질겨함이야 엇지로말하리오 빙심이 김부인과 도부인
 께배헌하고 하해갓흔덕을 만사치하하며 소경사를일사히고하니 김부인이빙심
 의손을어루만지며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빙심이수명후 구고를효도로섬기며 도부인을공경하야 일호도래만함이업시 동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빙심이수명후 구고를효도로섬기며 도부인을공경하야 일호도래만함이업시 동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이는 너의절의를사랑하사 하날이도으심이라 아모썩록 가장을보좌하야 가
 님의단난을이르게하라」

「예구—서방님 웨일이오 어서드러오시오」
 「그간평안히지냈스며 빙심으로하야 얼마나 애를쓰소」
 「늙은사람이 애를쓰면 얼마나 쓰겠소마는 빙심으로하야서 죽어도 눈을못감
 겠소」

「내가전일에 추천아기의 위인을모르고 젊은아이로 유취취침이불가할뿐의
 라 가뎡에 풍기가문란할가함이러니 오날추천아기를보니 위인이무던하야
 사나히로 호탕케아니하겠스며 네처로말하여도 질투에는 일으지안이하겠기
 루히히하노니 삼갈지어다 나는예정과갓치 철월회조간에올나갈터이니 너는
 오날하로쉬여서래일을나갓다가 철월그음에나려오되 이장기를주노니 이와
 갓치준비하여라」
 덕승이수명후 장기를바드나 그장기는 즉빙심의집을재로배치하라함이러라 잇
 혼날덕승이 부친께고별하고 즉시서울로올나와 모부인께말삼을고하고 이웃집
 하나를사서 일신수보하고 가장좁물을배치한후 빙심모를다려올재 빙심모는
 빙심을보내고 주야맘을못눅코 하날세축수하더니 하로는 식전사치가 두세번
 짝々올고 남으로나라간다 빙심모 창문을열고내다보며
 「오날이야 반가운소식이잇슬가 사치가지지니」말이맛기전에 누가대문을흔
 들며 문을열나한다 빙심모속으로
 「내집이와서 문을열나고할사람이 엽는데누구일가」하고나와서 문을열더니
 깃분의넘치여삼작놀나며

最新刊大好評書籍案內

□	□	□	□	□	□	□	□	□	□	□	□	□	□	□	□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流	新	鮮	青	男	現	流	小	小	小	小	小	小	小	小	小
行	行	行	女	行	行	行	悲	悲	悲	神	哀	戰	戀	家	家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特別最新唱歌集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定價六十錢

版權所有

昭和六年十二月廿五日 印刷
昭和六年十二月三十日 發行

青春의 愛人
定價金三十錢

京城市龍洞二八ノ三 著作兼 發行人 **尹用燮**

京城市龍洞二八ノ三 印刷人 **趙鏞沐**

京城市黃金町貳丁目一四八 印刷所 **世昌書館印刷部**

京城市黃金町二丁目一四八 發行兼 總販賣所 **世昌書館**
振替京坂一五四二〇番

